



미국

최대 수의질병정보 인터넷제공

가축질병에 관한 진단, 치료 및 예방법에 관한 최고의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머크수의편람으로도 잘 알려진 이 정보는 지난 7월 16일 미국 내슈빌에서 개최된 수의학협회 연차총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merckvetmanual.com이다.

- 참조 : 미국 Dairy Today E-report

중국

냉동닭고기 수입증가

중국세관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1~4월간 중국 냉동닭고기 주요 수입관문인 심천으로부터 수입한 냉동닭고기는 14.01만톤에 달하여 전년동기대비 31.57% 증가했으며, 수입제품의 86%가 미국산이었다.

닭날개, 닭발, 닭고기 가격이 중국 국내시장의 수요증가로 해외시장보다 높아 중국의 냉동닭고기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월에는 냉동 닭고기 제품의 관세가 대폭 낮아졌다. 한편 중국 냉동닭고기 제품의 수출은 빈번히 외국의 검역 문제로 타격을 받고 있다.

금년 1월 25일 EU는 중국산 닭고기, 새우 등에 대해 농약잔류, 약물잔류, 미생물표준초과 등의 원인으로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다.

이 영향으로 중국의 금년도 1~4월간 냉동닭고기 수출량은 6.73만톤, 수출액이 1.01억불로써 동기대비 46.2%와 42.4% 감소되었다.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북경농업무역관/시장보)

스위스

중국산 가금육 수입금지조치 정식 해제

스위스는 올해 2월 8일 발표한 중국산 가금육 및 그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7월 2일부로 정식 해제하였다.

이에 질량검사총국은 “앞으로 수출상품의 검사,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수출상품의 위생을 제고시키고 유럽시장에서의 중국산 가금육의 품질 신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북경농업무역관/농민일보)

네덜란드

사육기간이 긴 닭 판매

네덜란드 최대 슈퍼체인인 Albert Heijn(AH)은 앞으로(5년내) 사육기간이 긴 닭고기를 판매할 예정으로 판매시점까지의 닭 사육기간이 현재 42일에서 56일로 연장된다.

1999년부터 와겐닝엔대학교와 농업경제연구소가 함께 연구·실험한 결과 품질과 맛이 우수하고, 특히 사료 및 약품 등으로 조기 성장시키지 않고 자연적으로 성장시켜 판매하므로 동물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좋은 반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육비용은 3% 상승되나 유럽 소비자들의 동물보호 및 자연식품 선호경향에 따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화란농업무역관)

◆ 물먹인 닭고기 정부에서 엄정 단속

물과 돼지 혹은 소 단백질을 주입한 브라질, 태국산 닭고기가 수입되어 네덜란드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수입시 브라질, 태국산 닭고기의 정밀 검사는 물론 관련자(업체)를 색출, 수입 규제 등을 검토 중이다.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화란농업무역관/EU Food Law)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청량음료-닭고기 수입금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보건상의 이유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일부 식품 및 음료에 대해 일시적인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고 BBC 인터넷판이 지난 7월 26일 보도했다.

사우디 통상부는 이 금지조치가 인체에 해로운 성장호르몬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탄산음료와 닭고기 제품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사우디의 SPA 통신은 오사마 파키흐 상무장관이 일부 유럽산 식품 속의 성장 호르몬이 암과 성기능 장애를 유발한다는 일련의 보도들이 나온 후 수입금지조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상부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에 따라 유럽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계속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 정부는 사용금지된 불법 성장호르몬을 생산한 아일랜드와 벨기에의 두 기업에 대해서도 통상금지조치를 내렸다.

현재 벨기에, 독일, 영국 등 EU 8개국은 유럽내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 성장호르몬인 MPA가 청량음료와 돼지 사료 등에서 발견됨에 따라 식품업체 및 사료업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자료 : 연합뉴스

러시아

미국과의 '닭고기 분쟁' 사실상 타결

미국산 가금류의 러시아 수입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이 7월 24일 검역 기준에 대한 새로운 구두 합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은 두나라 농업부 장관들이 전화 회담을 갖고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닭고기 검역 기준에 대한 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이같이 전했다.

새 합의에는 ▲검역 기준과 절차 ▲검사 지침 및 과정 ▲위생 기준 ▲통관 서류작성 양식 등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러-미 양국은 그동안 미국산 가금류의 위생 문제를 놓고 무역 분쟁을 벌여왔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미국산 닭고기에서 항생물질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4월 15일에는 수입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하며 새로운 검역 기준을 제시했다.

러시아는 이어 7월 31일까지 미국이 위생문제 해소를 위한 만족할 만한 개선택을 마련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가금류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미국은 이에 자국이 러시아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것에 대한 보복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맞서 왔다.

러시아 농업부의 한 관리는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새로운 검역 기준이 거의 합의됐다”고 분쟁 타결 사실을 시사하면서도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리는 “러시아가 이번 제안을 수용하면 닭고기 분쟁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2개월여 간의 유예기간에 양국 전문가들이 새로운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 : 모스크바=연합뉴스

파나마 닭고기 소비 증가

파나마에도 비만, 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적색 육류는 될 수 있으면 적게 먹고 대신 닭고기나 칠면조를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나마는 중미 지역에서 닭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파나마는 sancocho(닭고기스프) 등을 비롯한 닭고기 음식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파나마의 1인당 닭고기 평균 소비량은 62 파운드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의 74 파운드보다 적지만 브라질의 52 파운드보다 많은 수준이다.

닭고기 가공업체로는 Toledano 등이 있다.

닭고기가 가진 건강식품으로서의 장점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으로 앞으로 닭고기 수요는 늘어나 다른 쇠고기나 돼지고기 대체재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인 산업 분야 불황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가공산업은 계속 호황을 누리는 동시에 수출산업으로서의 위치도 강화되어 관련 닭고기 가공 기구, 기계, 위생설비 등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C

- 자료 : 파나마 무역관